

조선(朝鮮) 사론 산문(史論 散文)의 한 단면

- 소식(蘇軾)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

정하정*

<차 례>

1. 서언
2. 소식 산문의 전범성과 사론 산문
3. 소식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4. 결어

<국문초록>

본고는 전대의 논의를 논박함으로써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론 산문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소식의 작품을 비판하는 조선 사론 산문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 문인들에 의해 소식의 사론 산문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품들이 소식의 견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논파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소식의 산문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소식의 산문은 전범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식의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리 전개에 대해 긍정하는 다수 비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식의 산문이 긍정 일변도로 평가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사상적 측면에 대한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론 산문과도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

전범으로 인식되었던 소식의 산문이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소식의 사론 산문에는 그의 사상적 개방성에 기인하여 유가적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가의 사상에 경도되었던 조선 문인들에게 부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대의 논의를 비판하고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사론 산문의 창작 경향 속에서 전범의 위상을 지닌 그의 사론 산문은 후대 문인들에게 단연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조선 문인들은 소식이라는 전범을 넘어서기 위해 특정한 서술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한다. 구체적으로 소식의 <무왕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유교적 통념 거부에 대한 비판의 예각화가, <오자서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논리 전개에 차용을 통한 반박의 심화가, <범증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치밀한 정확적 근거 제시를 통한 논파의 강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주제어 사론 산문, 소식, 비판 양상, 무왕, 오자서, 범증

1. 서언

본고는 조선 시기 다양한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어온 사론 산문(史論散文)¹⁾의 창작 경향을 고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소식(蘇軾, 1037~1101)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전근대시기 문인에게 역사서의 탐독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문인들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축적하였고, 그 견해를 사론 산문이라는 형태로 제출하곤 하였다. 이러한 사론 산문 가운데에는 전대의 논의를 비판하거나 긍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토론의 장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이 있다.²⁾ 이러한 측

1) 백진우는 사론 산문을 한문 산문 가운데 고문(古文)의 범주에 귀속되는 단편의 역사 논문으로 정의하고 한문 산문 가운데 일정한 장르적 관습을 유지하며 창작된 일련의 작품군을 묶어 '사론 산문'으로 지칭하였다. 백진우, 『조선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2쪽.

2) 사론 산문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라는 공통의 제재를 다루기 때문에 여느 문체보다도 담론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조리 있게 짜인 압축된 논문의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논의의 수준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논자들은 공통의 화

면은 중국보다 조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소식의 사론 산문을 비판하는 다수의 조선 사론 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식은 당송고문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사람이다. 조선 문단에서는 당송고문에 대한 추숭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중 소식에 대한 추숭은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산문 작품 가운데 공용문(公用文) 창작과 관련하여 논책류(論策類)에서 그의 장점을 찾는 시각은, 도학의 입장에서 그의 산문을 폄하하는 경향이 강해진 조선 중·후기에서도 꾸준히 존속되어 왔다.³⁾ 이러한 측면은 소식의 논책류에 속하는 사론 산문이 조선 문인들에게 전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녔다는 것을 대변한다.⁴⁾

한편, 소식의 사론 산문은 전범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동시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론 산문 창작에서 전대의 논의를 딛고 자신의 견해에 무게감을 실기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전의 권위 있는 논의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 사론 산문에서는 소식 작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식이라는 전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조선 문인의 강렬한 욕구의

제를 두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담론을 형성해 나간다. 혼자서 목소리를 내고 혼자서 듣는 글이 아니라, 지면이라는 공간을 통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백진우(2011), 위의 논문, 100쪽.

- 3) 송혁기, 「17-18세기 조선 문인의 蘇軾 산문 批評」, 『한자한문연구』 2, 2006, 76쪽 참조
- 4) 현대 연구자들 역시 소식의 사론 산문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樊德三, 「試論蘇軾歷史人物論的特色」, 『淮北煤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85年 02期; 謝敏玲, 「試探蘇軾諸葛亮論樂毅論的隱含作者」, 『屏東師院學報』 第22期, 1993; 陳曉芬, 「蘇軾史論文中的人格思考」, 『吉安師專學報』 2000年01期; 김계태, 「三蘇의 六國論」, 『중국어문학논집』 25, 2003; 嚴瀾, 「論蘇軾史論散文的藝術特色」, 『南方論刊』 2006年11期; 何玉蘭, 「略論蘇洵_蘇軾史論散文的藝術特色及價值」, 『樂山師範學院學報』 2006年02期; 劉弘遠, 「從〈管仲論〉看三蘇史論文的相互關係」, 『文教資料』 28期, 2008; 粟品孝, 「宋代三蘇의 史論」, 『西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9卷 第1期, 2010; 花妮娜, 「蘇軾“史論文”簡論」, 『渭南師範學院學報』 第26卷 1期, 2011; 林崢, 「蘇軾史論文的思想與藝術特徵」, 『南方論刊』 2013年 第6期.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론 산문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던 소식은 그를 넘어서고자 하였던 조선 문인들에 의해 자주 소환되어 비판 대상이 되었던 바, 조선의 사론 산문에서는 소식을 논리적으로 논파(論破)하고자 하는 면들이 강하게 엿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전범으로 공인되었던 소식 산문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들이 소식 사론 산문을 어떻게 비판하며, 그 비판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식의 논의를 넘어서기 위해 조선 문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사론 산문의 일면을 고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소식 산문의 전범성과 사론 산문

소식의 산문은 고려조에 수용되어, 17-18세기에서는 그의 산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이 이루어졌다. 소식 산문에 대한 긍정적 비평에는 논책류 산문에서 보이는 참신한 입론과 거침없는 논지 전개가 그 중심에 놓인다.⁵⁾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동파의 산문은 가을 조수가 불어나자 온갖 시내가 거꾸로 흐르고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자 온갖 구멍이 성내며 부르짖는 것과 같다. 또 마치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 하루아침에 조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한 것과 같다.⁶⁾

5) 송혁기(2006), 위의 논문, 76~84쪽 참조.

6) 金萬重, 『西浦漫筆』, 下96. “東坡, 如秋潮生而百川倒流, 厲風作而萬竄怒號. 又如淮陰侯, 不崇朝而破趙二十萬衆.” 『西浦漫筆』에 대한 번역은, ‘심경호 역, 『서포만필』하, 문학동네, 2010’을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인용문은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이 당송팔대가에 대해 가한 비평 가운데 소식에 대한 부분이다. 김만중은 소식의 산문을 거꾸로 흐르는 하천,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세찬 소리, 그리고 한신이 조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한 형세에 견주어 평가하고 있다. 이는 거침없는 기세와 변화무쌍한 소식 산문의 특징을 주목한 언사이다. 허균(許筠, 1569~1618) 역시 소식의 산문에 대해 “베를 짜내듯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어 변화가 무궁하기에 사람들이 그 신묘함을 측량하지 못하니 또한 천년 이래 절창이다.”⁷⁾라고 한 것을 보면, 조선 중·후기의 다수 문인들이 소식 산문의 옹호하고 변화무쌍한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식의 산문 가운데 사론 산문과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비평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식 산문에 보이는 의론성에 주목하여 높이 평가한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고명께서는 소식을 받고, 사마천, 양웅, 한유에 견주어서 낮게 평가하셨는데 이는 부당합니다. 문장의 쓰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담리(談理), 기사(記事), 논사(論事)가 그것입니다. 반고와 사마천은 기사에 빼어났고 양웅과 한유는 담리에 뛰어났으며 소식은 논사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체재와 규범이 같진 않지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오묘한 경지에 이른 것은 똑같으니 어찌 성급히 소식을 낮게 평가할 수 있던 말입니까?⁸⁾

윗글은 최창대가 이익지(李益之)⁹⁾에게 답한 편지이다. 내용으로 보아

7) 許筠, 『惺所覆韻藁』 권13, 총간 74, 247쪽, <歐蘇文略跋>, “長公之弄出機抑, 變化無窮, 人不測其妙者, 亦千年以來絕調.”

8) 崔昌大, <答李益之>, 『昆侖集』 권12, 총간 183, 222쪽, “高明又以蘇氏之於班馬揚韓, 卑下爲甚, 此又不可. 夫文章之用, 有三, 有談理者, 有記事者, 有論事者. 班馬長於記事, 揚韓長於談理, 蘇氏長於論事, 雖體裁模範不類, 因其所長而各臻於妙則同, 何可遽斷爲卑下耶?”

일전에 익지가 소식의 산문을 사마천, 반고, 양웅, 한유에 견주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최창대는 부당하다고 말한다. 최창대에 의하면 문장의 쓰임으로는 담리(談理), 기사(記事), 논사(論事)가 있는데, 소식의 산문이 논사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창대가 지목한 논사란 바로 역사 사실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귀명(趙龜命, 1692~1737) 역시 소식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소식은 그 말이 비록 바른 이치에 위배되지만, 그 말은 자기 말이지 고인(古人)의 말이 아니요, 마음으로 터득한 견식이기에 길에서 주위듣고 말하는 이야기 따위에 견줄 바가 아니다. 대저 한유, 구양수는 법(法)이 빼어났고 소식은 의(意)가 빼어났다. 법은 일정함이 있고 의는 무궁하다. 일정함이 있기 때문에 국한되어 동일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생동하여 새롭다.¹⁰⁾

기존의 유구한 시간 속에서 견고하게 축적된 역사 통념을 깨고 자신만의 참신한 입의(立意)를 설정하는 것은 사론 산문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위 인용문에서 조귀명이 소식의 장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바로 입론의 설정이다. 조귀명은 한유와 구양수가 법에 빼어난 반면, 소식은 의에 뛰어났다고 하면서 그의 독창적인 입론에 대해 역설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소식 산문에서 장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주로 사론 산문 창작과 일정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사론 산문의 중심에 자리하는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지 전개는 조

9) 익지(益之)는 이하영(李夏英, 1674~?)의 자이다. 그는 1710년 증광시 진사에 급제하였고, 의금부 도사 등을 지냈다. 최창대 및 최석과 교류한 인물이다.

10) 趙龜命, <贈羅生沆序>, 『東溪集』 권1, 총간 215, 12쪽, “蘇氏者, 其言雖違正理, 乃己言而非古人之言, 乃胸中獨得之見識, 而非道聽塗說之比也. 夫韓歐以法勝, 蘇氏以意勝, 法有定而意無窮, 有定故局而同, 無窮故活而新也.”

선 문인들에게 널리 인정되었던 바, 그의 산문이 전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위 조귀명의 ‘그 말이 바른 이치에 위배된다’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식의 산문이 긍정 일변도로 평가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입의나 논지 전개와는 다른 맥락에서 소식의 산문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소식은 고려에 대한 폄하적 발언과 정이(程頤, 1033~1107)와의 대립, 그리고 그로 인한 주희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특히 주자학의 구심력이 강화되었던 조선 중·후기의 문인들에게 비판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식 산문에 대한 부정적 비평은 주로 작품의 성취와 같은 문학 내적 문제가 아닌 사상적 측면에 집중되어 보인다.

소씨(蘇氏)의 말 가운데 고원한 것은 유무(有無)에 출입하고 굽이굽이 의리(義理)를 이루며, 낮은 것은 이해(利害)를 진술하여 인정에 간절하고 가깝다. 그의 지식(智識)과 재변(才辯)은 도모하면 기개가 되고 또 떨쳐 빛을 발하여 장황하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연히 기빠하며 싫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왕안석(王安石)에 견줄 바가 아니다. 그러나 도학(道學)에서는 큰 근본에 어둡고, 사실을 논함에 있어서는 권모(權謀)를 숭상한다. 부화함을 과시하며 본질을 잊고, 통달을 귀하게 여기며 명분·예법을 천하게 여긴다. 이는 천리를 해치고 인심을 어지럽히며 도술을 방해하고 풍교(風教)를 퇴폐시키는 것이다. 어찌 모두 왕안석의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¹¹⁾

인용문은 주희(朱熹, 1130~1200)가 소식 문학을 비평한 글이다. 여기

11) 朱熹, <答汪尚書>, 『晦庵集』 권30, “蘇氏之言, 高者, 出入有無而曲成義理, 下者, 指陳利害而切近人情, 其智識才辯, 謀爲氣槩, 又足以震耀而張皇之, 使聽者欣然而不知倦, 非王氏之比也. 然語道學則迷大本, 論事實則尚權謀, 銜浮華忘本實, 貴通達賤名檢, 此其害天理亂人心, 妨道術敗風教, 亦豈盡出王氏之下也哉?”

서 주희는 왕안석에 비해 소식의 해로움이 더 크다고 말한다. 소식의 글이 천리를 해치고 인심을 어지럽히며 도술을 방해하고 풍교를 퇴폐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도학에서는 큰 근본에 어둡고 사실을 논함에 있어서는 권모를 숭상한다’는 그의 언급은, 성리학의 자장 속에 있었던 조선 문인들에게 소식을 바라보는 견고한 관점으로 정착되었다.

이항로는 주희의 이 언급에 대해서 “유무에 출입한다는 것은 아마도 황홀하고 어지러우며 종횡하여 쥘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와 같다면 어찌 의리를 굽이굽이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아마도 굽이굽이 이루었다는 것은 사특하고 바르지 못한 뜻으로서 그를 폄하한 말일 것이다.”¹²⁾라고 하였다. 이항로는 주희가 소식의 문학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지점마저도 철저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소식이 뜻을 펼칠 수 있었다면 왕안석보다 해로움이 훨씬 심했을 것’이라는 주희의 이 발언을 주제로 과작(科作)이 창작되기도 하였다.¹³⁾ 과작이 국가시험의 대비로 창작된 작품이므로 독자의 공감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소식에 대한 주희의 이 비평은 조선 문인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식 산문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비평은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리 전개에 관한 긍정 및 사상적 측면에 대한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론 산문과도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리 전개는 사론 산문의 문학적 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니와, 그의 사상적 비순정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조선의 사론 산문을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李恒老, <答仲子堦>, 『華西集』 권13, 총간 304, 348쪽, “出人有無云者, 似謂其恍惚冥縱橫不測也. 夫既如是, 又焉能曲成義理也? 抑所謂曲者, 是回邪不正之義, 而亦貶之之辭耶?”

13) 申昉, <東坡得志, 其害甚於荊公論>, 『屯菴集』 권5, 총간 66, 507쪽.

3. 소식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사론 산문 창작에서 전대의 논의를 닫고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전의 권위 있는 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을 입각점(立脚點)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사론 산문 창작에 있어서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론 산문의 전범으로서 위상을 지녔던 소식의 작품은 그러한 경향 속에서 조선의 많은 문인들에게 비판 대상이 되었다.¹⁴⁾

특히 소식의 <무왕론(武王論)>, <범증론(范增論)>은 조선의 여러 문인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한 소식의 <오자서론(伍子胥論)>은 여러 문인들에 의해 비판받지는 않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론 산문의 서술 기법이 특징적이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무왕론> : 유교적 통념 거부에 대한 비판의 예각화

은나라 말엽 폭군 주(紂)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武王)은 유교의 영향 아래 성인으로 추대되어 왔다. 그리고 무왕이 신하로서 군주인 주왕을 정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하늘의 뜻과 민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만큼 무왕에 대해 천명과 민심을 따랐던 성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공고한 유교적 통념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식은 <무왕론(武王論)>을 지어, 무왕에 대해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죽였다고 하여 성인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유교적 통념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던 바, 조선 문인들에게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은 <소식비무왕(蘇軾非武王)>이라

14) 소식의 작품을 비판하는 조선 시대 사론 산문의 목록은 부록의 <표 1>를 참조할 것.

는 작품을 지어 소식의 견해를 비판하였는데 단락별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들 근심 가운데 가장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입론이 기이하며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고고하게 논의하여 함부로 다른 인물에 대해 시비를 가르는 일이다. 오직 인인(仁人)·군자(君子)인 연후에야 그 말이 평이하고 정직하여 감히 비정상적 논의를 하지 않는 법이다. 이는 진실로 도를 본 것이 밝지 않고 발끈 화를 내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식이 무왕에 대해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며 심지어 군주를 시해했다는 죄로 지목하고 남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고서는 또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실증하였다. 대저 시해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대악(大惡)이고, 무왕은 대성(大聖)이다. 대악을 가지고 대성에 능욕하였으니 비록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불가함을 아는데 소식만 알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특한 생각을 드러내기를 더 이상 거리까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2] 무릇 천하의 도에는 상도(常道)가 있고 권도(權道)가 있다. 상도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하고 권도는 도를 익힌 자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상나라 주왕이 천명을 태만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어 그 죄가 가득하였으니 상제가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어찌 명을 내려 주왕을 죽게 하고 (무왕을) 백성들의 부모로 삼으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보니 무왕께서 군사를 이끌고 맹진을 건너 주왕을 치지 않을 수 없었고, 목야의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제후들이 기약하지 않고 모인 자들이 800명이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그에게 귀의한 것이다. 하늘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귀의한 것을 성인이 아니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요·순이 선양한 것과 은나라·주나라가 계승한 것은 그 의미가 매한가지이다.”라고 하였고 맹자께서 “요·순(堯·舜)은 본성대로 한 자이고, 탕·무(湯·武)는 체득한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성인이어야만 성인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식과 같은 자가 어찌 무왕의 마음을 알겠는가?

[3] 선유들이 소식에 대해 논하면서 “학술이 바르지 않으며 사둔(邪遁)한

지경에 흘러 들어갔다.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입언이 바르지 않다.”고 하였다. 우강(盱江) 이구(李觀)는 맹자가 주나라 왕실을 존숭하지 않았다고 여겨 성현의 경전에 대해서 모두 읽었지만 『맹자』만큼은 읽지 않았다. 그가 『맹자』를 읽지 않았던 이유는 도를 본 것이 밝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니, 함부로 성현을 의론하고 경전을 엮신여긴 것이다. 그 후에 소식이 눈을 지어서 무왕을 비난하였으니 그것을 잘못되게 한 자는 이구이다. 내가 이 때문에 아울러 글을 써서 후세의 이구나 소식과 같은 자를 경계하노라.¹⁵⁾

편폭이 짧고 ‘문제제기 → 반론 및 논거제시 → 결론’이라는 논리적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게다가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소식의 <무왕론>을 겨냥하여 그에 대한 비판을 창작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세우는 입의의 측면보다 소식의 견해를 논파해 가는 설득력에 작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부필은 창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채로운 서술기법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해간다.

먼저, 이 작품은 글 서두에 자신이 겨냥하는 작품의 일부를 수록하고,

15) 金富弼, <蘇軾非武王>, 『後彫堂集』 권3, 속총간 2, 509면, “[1] 人之患最不可爲者, 立異自高, 放言高論, 妄是非人物也. 惟仁人君子然後, 其言平易正直而不敢爲非常之論, 此固非見道不明悻悻者之所能爲也. 蘇軾以武王爲非聖人, 至以弑君目之, 懼人之不信, 則又引孔子之言以實之. 夫弑逆大惡也, 武王大聖也. 舉大惡而加大聖, 雖三尺童子, 猶知其不可, 而軾獨不知何也? 不過逞其邪思, 無復忌憚者也. [2] 凡天下之道, 有常有權. 常道人皆可守, 權非體道者不能也. 而商紂慢天虐民, 厥罪貫盈, 以上帝孚佑之心, 曷不命而殛之, 作民父母乎? 然則孟津之師, 不可不渡也. 牧野之戰, 不可不用也. 諸侯不期而會者八百, 則是天與之也人歸之也. 天與人歸者非聖人而何? 孔子曰, 唐虞禪, 殷周繼, 其義一也. 孟子曰, 堯舜性之也, 湯武身之也, 惟聖人然後能知聖人, 若軾者豈足以知武王之心哉? [3] 先儒論蘇軾曰, 學術不正, 流入邪遁之域. 惟其人不正, 故其立言不正云. 昔盱江李觀, 以爲孟子不尊周室, 於聖經賢傳, 無所不讀, 於孟子不讀, 其所以不讀者. 不過曰見道不明, 妄議聖賢而侮經傳者也. 其後蘇軾著論而非武王, 誤之者李觀也. 愚故并著之, 以戒後世之如觀與軾者.”

그 다음 자신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일반적인 사론 산문의 양식과 조금 다르다. 김부필은 첫머리인 [1]에서 비판의 대상인 소식의 <무왕론>에 대해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함부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근심거리라는 일반론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식을 비판하려는 암시를 드러낸다.

한편, [2]에서는 소식의 <무왕론>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자신의 논거를 제시한다. 바로 이 글의 관건인 설득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단락이다. 우선 김부필은 이를 위해 ‘도(道)’라는 키워드를 꺼내든다. 도에는 상도(常道)와 권도(權道)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무왕의 정벌을 권도라고 정당화하는 한편, [1]에서의 ‘진실로 도를 본 것이 밝지 않고 발끈 화를 내는 자[見道不明悻悻者]’, 즉 소식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소식이 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인물평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김부필의 논리가 상도·권도에 대한 언급을 통해 드러나는 셈이다. 이어서 그는 천명(天命)과 민심(民心)을 들어 무왕의 정벌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유도한다.

또한 이 단락 마지막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말을 인용한다. 경전(經典)이나 고전(古典)이 가지는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수사의 의미를 넘어 흥미로운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소식이 무왕을 성인이 아니라고 평가한 근거 가운데 핵심이 바로 공자의 발언인데, 김부필은 소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논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의 <무왕론>에 대한 논파에 이어서 [3]에서는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비판과 경계로 글을 마무리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식을 평가하면서 ‘학술이 부정(不正)하고, 사람이 올바르게 못하여 입언이 바르지 않다’고 한 언급이다. 이는 소식의 유교에 대한 순정하지 못한 측면이

사론 산문에 투영되었기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소식 사론 산문을 비판하는 데에 단순히 새로운 입론을 위한 전범의 부정과는 다른 이유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권시(權詵, 1604~1672)의 <소씨논무왕변(蘇氏論武王辨)>에서도 확인된다. 이 작품은 소식 사론 산문의 비판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독특한 작품 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작품이다.

소식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탕왕과 무왕을 성인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모두 공자의 죄인이다.” 소식은 아마도 또한 자세히 살피지 못했을 따름이다. 공자께서도 역시 탕왕과 무왕을 두고서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의 뜻에 순응하였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소식은 패업(霸業)을 좋아하여 천하의 지극한 공변됨을 싫어했던 것 같다. 이는 대개 그 심법(心法)이 병을 얻은 근원이다. 그러므로 그가 글을 지어 어떤 일에 대해 드러내는 것이 비록 이 글과 같은데도, 스스로는 가장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였으니 또한 그 지모(智謀)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공적과 이익을 벗어나지 못했을 따름이다. 소식의 글을 읽는 자는 잘 살필 지어다!¹⁶⁾

인용문은 작품의 마지막 단락이다. 소식의 <무왕론>을 부분 인용하고 자신의 반박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대의 논의를 비판하는 사론 산문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마지막 단락 뿐 아니라 작품 전체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권시는 작품을 총 8단락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단락마다 <무왕론>의 일부를

16) 권詵, <蘇氏論武王辨>, 『炭翁集』 권10, 총간 104, 441쪽, “又曰, 學者以湯武爲聖人者, 皆孔氏之罪人也. 蘇氏蓋亦不察而已矣. 孔子亦謂湯武曰, 應天順人. 蓋蘇氏喜霸圖, 而厭惡天下之至公. 此蓋其心術受病之源. 故其立言著事, 雖如此篇, 蓋其自謂最明正者, 亦不出其智謀之意, 功利之務耳. 觀者其亦察之哉!”

인용한 뒤 그에 대한 비판 및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전체를 보면 소식의 <무왕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인상을 주어, 공고히 축적된 유교적 통념을 거부하는 소식을 거세게 비판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 작품의 특징이자, 중국의 사론 산문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조선 사론 산문의 일면모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서술방식이 주로 소식의 사론 산문을 비판하는 작품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그만큼 사론 산문이라는 토론의 장에서 조선 문인들에게 소식은 누구보다 논파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문인들이 유독 소식의 사론 산문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심지어 그에 대한 비판만을 목적으로 사론 산문을 창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위 작품은 소식에 대한 비판과 경계로 글을 매듭짓고 있다. 앞서 본 김부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소식에 대해서 천하의 지극한 공변됨을 싫어하고, 스스로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했다는 지적은 김부필의 작품에서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입언이 바르지 않다”, “입론이 기이하며 스스로 뛰어난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고고하게 논의한다”는 언급과 상통한다. 권시 역시 소식의 <무왕론>에서 보이는 학술·사상의 비순정성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소식의 작품에 대한 조선 사론 산문의 강도 높은 비판이 그 학술·사상의 비순정상에서 연유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소식이 <무왕론>에서 제시한 견해는 조선 문인들에게 학술·

17) 소식의 학술·사상적 비순정성을 문제시하는 사론 산문이 <무왕론>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의 다른 사론 산문을 대상으로 보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컨대 이종휘(李種徽)의 <장자방론(張子房論)>은 소식의 <유후론(留侯論)>에서 보이는 흠다리 위의 늙은이의 학문을 긍정하는 태도를 비판한 작품으로, 이는 황로학을 긍정한 소식의 학술·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반발은 사론 산문에서 다양한 서술 기법을 통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조목조목 부분들을 거론하며 낱낱이 논파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2) <오자서론> : 논리 전개와 차용을 통한 반박의 심화

복수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오자서(伍子胥)이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자신의 옛 군주였던 초 평왕(楚平王)의 시신에 채찍질을 하였다. 이 행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¹⁸⁾ 바로 오자서의 행위에 충(忠)과 효(孝)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식은 <오자서론>을 통해 오자서의 행위를 긍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논의 중심에 오자서가 아닌 오자서를 비판한 양옹이 놓인다는 점이다. 즉 소식의 <오자서론(伍子胥論)>¹⁹⁾은 양옹의 논의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다.

이 작품의 비판 대상이 되는 양옹은 오자서와 문종(文種), 그리고 범려(范蠡)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오자서가 초 평왕의 시신에 채찍질한 점과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떠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예법을 몰랐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문종과 범려보다 오자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작품의 요지이다.²⁰⁾ 소식은 이런 평가를 내린 양옹을 거론하면서 그에

18) 이에 대해서는 윤세순,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학사연구』 51, 2013; 백진우(2011), 위의 논문, 176~186쪽에 상세하다.

19) 이 작품은, 『東坡志林』에서는 <論子胥種蠡>으로 되어 있으며, 『蘇軾文集』에서는 <論伍子胥>라고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唐宋八大家文抄』에 수록된 제목을 따르기로 한다.

20) 揚雄, 『法言』『重黎』, “或問子胥種蠡孰賢? 曰胥也, 俾吳作亂, 破楚入郢鞭尸, 藉館, 皆不由德. 謀越諫齊不忒, 不能去, 卒眼之. 種蠡不彊諫而山棲, 俾其君誑社稷之靈而童僕, 又終弊吳, 賢皆不足邵也. 至蠡策種而遁, 肥矣哉!”

대한 강한 비판적 어조를 드러낸다.

[2] 소자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오자서와 문종과 범려는 모두 인걸(人傑)이었는데, 양웅은 고루한 선비였으니, 자신의 하찮은 학식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흠을 트집 잡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세 번 간하고도 떠나가지 않은 것과 평왕의 시신에 채찍질한 것과 왕의 관사를 차지하여 거처한 것을 가지고 오자서의 죄로 삼았다. 그리고 구천에게 강력하게 간하지 않아서 궁지에 몰려 회계산에 머물게 된 것을 가지고 문종과 범려의 죄로 삼았다. 양웅은 옛날에 “군주에게 잘못이 있으면 신하가 세 번 간하고 마땅히 떠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음을 듣고서는 즉시 이것을 가지고 천하의 선비들을 다시 재단하고자 한 것이다. 어찌 고루하지 않은가? 세 번 간언하고 떠나가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와의 교분이 얇은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궁지기(宮之奇)와 설야(洩冶)와 같은 사람들은 떠나가도 괜찮지만 오자서와 같은 경우는 오나라의 종신으로 국가와 존망을 함께하는 자이니, 가면 어디로 가겠는가? 백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뒤를 잇는 것이 옳다.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가실 적에 일찍이 한 번도 간하지 않으셨으니, 또 어찌 세 번 간할 필요가 있겠는가?

[3]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면 자신이 복수를 하는 것이 예이다. 그러니 원수가 살아 있으면 그 목을 베고 원수가 죽었으면 시신을 채찍질하여, 그 지극한 애통을 발설하여 가릴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옛날에 군자들이 모두 오자서를 가엾게 여기고 용서해주었는데, 양웅만 유독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말인가? …(하략)…²¹⁾

21) 『唐宋八大家文抄』蘇軾 권13, <伍子胥論>, “[2] 蘇子曰, 子胥種蠡, 皆人傑, 而揚雄曲士也, 欲以區區之學, 疵瑕此三人者, 以三諫不去, 鞭屍籍館, 爲子胥之罪. 以不強諫勾踐, 而棲之會稽, 爲種蠡之過. 雄聞古有三諫當去之說, 卽欲以律天下士, 豈不陋哉? 三諫而去, 爲人臣交淺者言之, 如宮之奇洩冶乃可耳. 至於子胥, 吳之宗臣, 與國存亡者也, 去將安往哉? 百諫不聽, 繼之以死可也. 孔子去魯, 未嘗一諫, 又安用三?” [3] 父受誅, 子復讎, 禮也. 生則斬首, 死則鞭屍, 發其至痛, 無所擇也. 是以昔之君子, 皆哀而恕之, 雄獨非人子乎? …(하략)…” 본고에서 인용한 소식의 사론 산문에 대한 번역은 다음 책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성백효 역주, 『역주당송팔

소식의 <오자서론>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에서는 오자서에 관한 역사 배경이 간략히 소개되고, [2]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소식은 오자서를 평가하는 양옹의 기준이 ‘三諫當去之說’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기준이 군신간의 교분이 얇은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오자서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떠나지 않았던 오자서에 대해 부정하는 양옹의 핵심 논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뒤이어 언급되는 오자서가 오나라와 존망을 함께 해야 하는 신하인 점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날 때 한 번도 간언하지 않았던 점에 의해 설득력을 얻게 된다.

[3]에서 소식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논리로써 『춘추공양전』의 내용을²²⁾ 제시하며 “양옹은 홀로 사람의 자식이 아닌란 말인가!”라고 비판한다. 그리고는 초왕의 관사를 차지했던 것이 오자서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처럼 소식은 오자서를 평가하는 양옹의 논의에 대해 진단하고 날날이 비판을 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의 논의는 임상덕(林象德, 1683~1719)에 의해 다시 조목조목 부정된다.

소식은 “아버지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했다면, 자식이 복수하는 것이 상례이다.”라고 하였다. 아! 소식은 정말로 예에 대해 몰랐던 사람이다. 예라는 것을 어찌하여 베풀어야 하는가? 군신과 부자의 윤리

대가문초』 소식3, 전통문화연구회, 2011.

22) 『春秋公羊傳』定公 4年, “蔡昭公朝乎楚, 有美裘焉, 囊瓦求之, 昭公不與, 爲是拘昭公於南郢, 數年然後歸之. 於其歸焉, 用事乎河, 曰天下諸侯苟有能伐楚者, 寡人請爲之前列. 楚人聞之怒, 爲是興師, 使囊瓦將而伐蔡. 蔡請救于吳, 伍子胥復曰, 蔡非有罪也, 楚人爲無道, 君如有憂中國之心, 則若時可矣. 於是興師而救蔡. 曰事君猶事父也, 此其爲可以復讎奈何? 曰父不受誅, 子復讎可也, 父受誅, 子復讎, 推刃之道也. 復讎不徐害, 朋友相衛, 而不相迫, 古之道也.”

는 천지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이며 예가 베풀어지는 유래가 아니겠는가? 군신과 부자 사이의 의리는 함께 운행되면서 서로 위배되지 않은 뒤에야 실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에서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을 허락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언급이다. 『예기』에서 어찌 “군주가 신하를 살해하면 그 신하의 자식이 군주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했는가? 『예기』에서 과연 그렇게 말했다면, 이 예는 인적(人賊)이다.²³⁾

이 인용문 앞에는 임상덕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두주(頭註)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²⁴⁾ 이는 소식의 사론 산문의 서두에서 보이는, 역사의 배경을 간략히 서술하여 자신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부분과 동일한 구조이다. 또한 이 단락에서 임상덕은 소식의 언급을 전면에서 인용하여 이를 부정하고, 이어서 논거를 제시한다. 이 역시 소식의 서술 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구조상의 동일한 측면 뿐 아니라, 논리 전개에 있어서 소식의 작품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락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소식의 <오자서론> 가운데 [3] 단락에 대한 비판이다. 임상덕이 전면에서 인용한 소식의 언급, 곧 ‘父不受誅, 子復讎’는 소식이 오자서의 행위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임상덕은 이러한 소식의 기준을 부정하고 소식에 대해 예를 몰랐다고 비판적 발언

23) 林象德, <伍員復讎辨>, 『老村集』 권3, 총간 206, 73쪽, “蘇子之言曰, 父不受誅, 子復讎, 禮也. 噫! 蘇子其真不知禮者也. 夫禮者, 何爲而設也? 君臣父子之倫, 此非天地之大經大法, 而禮之所由設乎? 君臣父子之義, 並行而不悖, 然後斯可謂之禮也. 夫禮之所許子復父讎, 是爲塗之人而言也. 禮豈曰君殺其臣, 其臣之子殺其君, 以復父讐者乎? 禮果云爾, 是禮者, 人賊也.”

24) 임상덕은 일전에 <書伍子胥傳後>라는 글을 남겨 오자서의 복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소식의 <오자서론>을 보고 소식의 의견에 대해 반론하고자 이 글을 짓는다는 동기를 밝힌다. 林象德, <伍員復讎辨>, 『老村集』 권3, 총간 206, 73쪽, “余嘗論伍員復讐事, 以爲不容於春秋之誅. 及讀蘇長公文, 其論伍子胥曰, 楊雄曲士也. 以鞭尸藉館, 爲子胥之罪. 盛詆其謬. 二子者, 其論不同, 而楊子之言與余合, 故余與蘇子辨.”

을 더한다. 이는 소식의 작품 [2]단락에서 오자서를 평가하는 양옹의 기준이 ‘三諫當去之說’에 있다고 밝히고 양옹에 대해 “어찌 고루하지 않은가?”라고 한 부분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오자서에 대한 소식의 평가기준(父不受誅, 子復讎)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오자서에 적용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소식의 논리 전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²⁵⁾ 요컨대 임상덕은 소식의 <오자서론> 중 [3]단락 내용을 구체적인 비판 대상으로 삼아 그 작품 [2]단락의 논리 전개 방식을 차용하여 소식을 논파해가고 있는 셈이다.

소식은 또한 “옛 군자들이 모두들 슬피하며 그를 용서하였는데, 양옹만 유독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아! 어찌 그토록 말을 가리지 못했던가. 이 말로 미루어본다면 소식은 사람의 신하가 아니라 말인가! 소식은 ‘오자서가 이미 초나라를 떠났으니 그에게 평왕은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 머리를 베고 시체를 찢는 것이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예로는 옛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을 정도이니 진실로 예물을 바치고 한 번 군신 관계가 되었다면 의리상 그 관계를 끝내 끊을 수 없다. 하물며 오씨가 초나라에 있어서 대대로 군신의 관계로 있었음에랴!²⁶⁾

이 단락에서도 임상덕은 소식 작품의 논리 전개 방식을 차용하여 소식을 논파해간다. 소식이 양옹에 대해 “유독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란 말인가!”

25) <오자서론>에서 소식은 양옹이 오자서를 평가한 기준인 ‘三諫當去之說’에 대해 인신으로서 군주와의 교분이 얇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임상덕 또한 소식이 오자서를 평가한 기준인 ‘父不受誅, 子復讎’에 대해서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소식의 논리적 전개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26) 위의 글, “又曰, 古之君子, 皆哀而恕之, 雄獨非人子乎? 噫! 何其言之不擇也. 推斯言也, 蘇子非人臣乎? 蘇子之意以爲子胥旣已去楚, 則平王亦塗之人也, 斬首戮屍, 無不可也, 是大不然. 禮爲舊君有服, 誠以一委質爲君臣, 則義不可以遂絶也. 况伍氏之於楚, 世世之君臣乎!”

한 언급을 차용하여 “소식은 사람의 신하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함으로써 소식이 한 발언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준다. 또한 오자서에 대해 평가를 내린 소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를 부정하며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방식 역시 소식의 작품 [2]에서 보이는 논리 전개 방식과 동일하다.

위와 같이 소식 작품의 논리 전개 방식을 차용하여 소식의 견해를 논파해가는 부분은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다. 소식의 사론 산문이 가지는 논리적 정합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소식 산문이 지니는 장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오자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자신의 옛 군주의 시신에 채찍질한 행위는 충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효에 위배되며, 효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충에 위배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소식의 견해의 반대쪽에 서서 그의 논리 전개 방식을 차용한 서술이 더욱 절묘하게 그 효과를 거둔다고 할 수 있다.

3) 〈범증론〉: 치밀한 정황적 근거 제시를 통한 논파의 강화

조선의 사론 산문 가운데 가장 많이 비판 받는 작품은 소식의 〈범증론〉이다. 『한국문집총간』 및 『역대문집총서』에 수록된 범증에 관한 사론 산문은 총 22편인데 그 중 15편이 소식의 〈범증론〉을 비판하고 있다.²⁷⁾ 이처럼 소식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이 〈범증론〉이라는 특정 작품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증은 『사기』에 입전된 인물이 아니다. 그에 대한 기사는 〈항우본기〉에 파편적으로 보일 뿐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항우와 관련하여 이뤄진다. 즉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27) 이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 1>를 참조할 것.

문제로 범증을 조명한다. 항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초 회왕을 죽인 행동, 항복한 진나라 군대를 생매장한 일 등에 의해 부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이러한 항우를 섬긴 범증 역시 비판의 혐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범증에 대해 소식은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 떠났어야 했다고 하며 그를 걸출한 인물로 평가하였다.²⁸⁾ 또한 그는 논의의 과정에서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였다.²⁹⁾ 말하자면 소식은 범증을 평가할 때 항우의 부정적 면을 배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 문인들에 의해 철저히 비판된다. 바로 역사서에서 서술된 내용의 정황상 항우가 비판 받는 행위, 예컨대 초 회왕을 시해한 일의 그 배경에는 범증의 손길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선 사론 산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정황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식의 <범증론>을 논파해간다.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가 내리면 곧 단단한 얼음이 언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는 이 말을 풀이하여,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이 차츰차츰 있어 왔던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범증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고 경자관군 송의를 죽인 일은 모두 범증이 낸 계책이었다. 송나라의 소식은 범증이 필시 힘껏 간쟁하였으나 항우가 듣지 않았다고 여겼다. 게다가 그는 말하기를, “범증은 마땅히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였을 때 항우 곁을 떠났어야 했다.”라고도 하였다. 어찌 그리도 비루한 견식이며 잘못된 논의이던가.³⁰⁾

28) 『唐宋八大家文抄』蘇軾 권13, <伍子胥論>, “增高帝之所畏也, 增不去, 項羽不亡. 嗚呼! 增亦人傑也哉!”

29) 위의 글, “增始勸項梁立義帝, 諸侯以此服從, 中道而弑之, 非增之意也夫. 豈獨非其意? 將必力爭而不聽也.”

30) 李獻慶, <范增論>, 『艮翁集』 권22, 총간 234, 461쪽, “易曰, 履霜堅冰至, 夫子釋之曰,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所由來者漸矣. 其范增之謂乎? 項羽之

인용문은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의 작품 중 서두이다. 이헌경은 소식의 <범증론>을 거론하고 비판하면서 작품을 시작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또한 그는 『주역』과 그에 대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일의 조짐(발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일의 조짐을 파악하는 것이 범증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소식이 범증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였다.³¹⁾ 소식은 범증이 항우에게 의심받을 조짐을 미리 알아채고 떠났어야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를 강조한 반면, 이헌경은 범증의 조짐이 되는 행위에 주목하여 그를 평가하고자 강조한 것이다. 둘 다 역사 평가의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평가의 방향은 정반대로 갈라진 셈이다.

나는 범증이 단지 항우의 패악에 순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그렇게 만 들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이는 패공을 죽이길 권했고, 약속을 저버리고 촉 땅에 패공을 왕으로 삼았던 두 가지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어째서인가? 의제가 즉위한 것은 실로 항우 덕분인데 이는 범증이 주관하여 계책을 냈던 일이다. 범증은 (의제를 세움으로써) 초나라의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제가 장수를 보내어 진나라에 들어 보낼 때엔 항우를 보내지 않고 패공을 보냈고, 군대를 내어 초나라를 구원할 때엔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와 범증은 모두 송의의 휘하에 두었다. 이 때문에 범증이 회왕을 깊이 원망하고 송의와 패공 두 사람에게 원망을 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안양에 도착해서는 송의를 죽였고 홍문연에서는 패공을 죽이도록 권하였다. 패공은 바로 회왕이 파견한 장수였으니 송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 어찌 범증이 패공을 참아내면서 송의에 대해서

弑義帝殺冠軍，皆增之謀也。宋蕪氏以爲增必力爭而不聽，又曰，增之去，當於羽殺卿子冠軍時也。何其識之陋而論之謬也。”

31) 蘇軾, <范增論>, 『唐宋八大家文鈔』권130. “易曰, 知幾其神乎! 詩曰, 相彼雨雪, 先集維霰.”

참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예부터 왕위를 빼앗고 시해하는 패악은 군주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회왕이 약조하기를, “먼저 관중에 입성하는 이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항우가 사자를 보내어) 회왕에게 말을 아뢰자 회왕은 약속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범증은 또한 “과촉땅 역시 관중 땅입니다.”라고 하여, 회왕의 약조를 어기고 패공을 과촉 땅으로 보내버렸다. 항우의 악행은 범증이 모두 그렇게 시킨 것인데 어찌 유독 황제(의제)를 시해하는 일에 대해서만 간쟁하였겠는가?³²⁾

전술하였듯이 『사기』에서 범증에 대한 기사는 매우 소략하고, 특히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생매장시키거나 초 회왕을 죽일 때에 범증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항우의 이런 행위는 민심을 잃은 주요한 원인이자, 후대의 부정적 평가를 가져온 지점이었다. 그만큼 신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범증의 구체적인 행위는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가는 다양한 상상력으로 그 여백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현경은 범증이 항우의 패악에 순응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항우의 패악적 행위 이면에는 범증의 조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 근거로는 패공을 죽이길 권했던 일과 약속을 저버리고 촉땅에 패공을 왕으로 삼았던 일을 든다. 이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일의 조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분이다.

32) 李獻慶, <范增論>, 『良翁集』 권22, 총간 234, 461쪽, “余則以爲增非徒順之, 實教之也. 何以知其然也? 以勸殺沛公棄約王蜀二事知之也. 何則? 義帝之立, 實項氏之力, 而增爲謀主. 彼謂楚國之政, 可使由己而出, 而及遣將入秦則不遣羽而遣沛公. 發兵救趙則以宋義爲上將軍, 而羽與增皆處其下. 是以怨懷王深而甘心於此兩人, 至安陽而殺宋義, 至鴻門而勸殺沛公. 沛公乃懷王所遣之將, 而與宋義無異. 曾謂增能忍於沛公而獨不忍於宋義乎? 自古篡弑之惡, 未有不始於慢君蔑命者也. 懷王之約曰, 先入定關中者王之. 及致命於懷王, 懷王曰如約, 則增又曰巴蜀亦關中地也. 背懷王之約而遷沛公於巴蜀. 曾謂羽之惡, 增皆教之, 而獨能力爭於弑帝乎?”

이 근거에 입각한 이헌경의 논의를 따라 가보자. 먼저 범증이 폐공을 죽이기를 항우에게 권했던 일로 볼 때, 송의를 죽였던 일 역시 범증이 권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범증은 초 회왕을 세워 초나라의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진나라로 입성할 때에 회왕은 항우가 아닌 폐공을 지지했으며 조나라를 구원할 때엔 항우와 자신이 아닌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증이 군주의 명을 업신여긴 것을 통해 그가 군주를 시해하는 일을 조장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초 회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진나라를 공격하여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이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유방이 먼저 관중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권력을 잡아 멋대로 유방을 촉 땅의 왕으로 삼았다. 이 배경에는 파촉의 땅도 관중의 땅이라고 하여, 파촉 땅에 유방을 왕으로 봉해주는 일이 표면상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도록 한 범증의 발언이 있었다. 범증의 이 발언은 군주의 명을 업신여긴 것이다. 군주를 시해하는 폐약이 군주의 명을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범증의 이런 행위가 군주를 시해하는 폐약의 발단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이헌경은 범증이 항우가 초 회왕을 시해하는 일을 조장하였다고 보았다. 범증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기록이 없는 부분에서 단서가 되는 정황 근거를 자신의 논거로 치밀하게 활용한 측면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이익(李瀼, 1681~1763)의 <범증론>에서도 유사하게 보인다.

논설하는 사람이 “항우가 송의(宋義)를 죽인 것은 의제를 시해할 조짐이었고, 의제를 이미 시해하였으니, 이것이 범증을 의심하게 된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그렇지 않다. 송의와 폐공(沛公)은 모두 임금의 명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범증이 항우에게 폐공을 가차 없이

죽이도록 부추긴 것을 보면, 범증은 항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이고, 당시에 회왕(懷王)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지 못하였으니, 송의를 죽인 계략이 반드시 범증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³³⁾

여기서 말하는 논설하는 사람은 바로 소식을 지칭한다. 항우가 송의를 죽인 것은 바로 항우가 의제를 죽일 조짐이었기 때문에 이때 범증이 떠나야 했다는 것이 소식 <범증론>의 주지이다. 이익은 이런 소식의 견해를 비판하며 송의를 죽인 계략이 범증에게서 나온 것임을 추정한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 근거로 범증이 항우를 죽이도록 권했던 점을 들고 있다. 즉 범증이 항우를 죽이도록 부추겼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범증은 항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죽여야 함을 알았고, 군주인 초 회왕을 섬길 뜻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이현경의 논의와 그 근거가 매우 흡사하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도 이익은 두 가지 정황 근거를 제시하여 소식의 논의를 논파하고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진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회왕은 평소에 항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공에게는 관중으로의 진군(進軍)을 허락하였으나 항우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항우가 만약 한결같이 회왕의 명령에 따랐더라면, 속수무책으로 남에게 천하를 양보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회왕을 겉으로 높여 주는 체하며 강제로 침(槌)으로 옮겨 가게 하였고, 천하를 제멋대로 분할하여 자신의 측근을 모조리 봉해 주면서도 품의(稟議)하지 않았는데, 범증은 이것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패공을

33) 李灝, <范增論>, 『星湖先生全集』 권47, 총간 199, 360쪽, “說者曰, 羽之殺宋義, 殺義帝之兆, 而既弑則疑增之本也. 此大不然. 義與沛公, 均是君所命也. 增嗾羽殺沛公不恤, 則惟知害羽之當殺, 而不復知懷王之見在也. 殺義之計, 吾知其必出於增也.” 이 작품에 대한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DB를 참조하였다.

파촉(巴蜀)으로 내몰았던 것도 범증이 모주(謀主)가 되어 벌인 일이니, 그가 회왕의 명령을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던 것이다. 또한 항우와 회왕이 이미 양립할 수 없는 형세를 이룬 것은 실제로 범증이 부추긴 결과였으니, 회왕을 내쫓아 시해하도록 계책을 꾸민 것도 범증이 주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장담하겠는가.³⁴⁾

먼저 이익은, 항우가 회왕을 침(槲)으로 옮겨 가도록 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측근을 봉했 때 범증이 아무말도 없었던 점과 범증의 주도하에 패공을 파촉 땅에 봉했던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볼 때 범증은 진심으로 회왕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결국 항우와 회왕이 양립할 수 없었다. 이는 범증이 부추긴 결과이다. 이익은 이러한 두 사건 전말을 통해서 범증이 바로 회왕을 시해하도록 계책을 낸 주모자라고 단정한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이현경의 논의와 흡사하다.

이처럼 이현경과 이익은, 의제를 시해한 일이 범증의 본의가 아니었다는 소식의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 항우가 회왕을 죽인 일을 범증이 유도했다는 정황 근거를 든다. 이를 통해서 이현경과 이익은 범증을 걸출한 인재라고 평가한 소식의 논의를 뒤집는다. 이들의 논의 과정은 바로 『사기』에서 항우가 회왕을 시해했을 때 범증의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지 않은 점, 즉 역사기록의 여백에 대해 정황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논의를 세운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소식의 <범증론>을 논파하기 위한 서술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다.

34) 위의 글, “及秦滅, 懷王素不善羽也. 是以與沛公而不與羽. 羽若一聽其命, 將斂手讓與人天下而無如之何. 於是陽尊而勒遷之, 擅割天下, 悉封其私人而不稟, 增未嘗有一言. 沛公擯諸巴蜀, 增爲謀主, 其不有懷王之命久矣. 羽與懷王已成不兩立之勢, 而增實德患之. 至於放弑之謀, 亦安知其不爲之戎首乎?”

4. 결어

본고는 소식의 작품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조선 사론 산문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선 문인들에 의해 소식의 사론 산문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품들이 소식의 견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논파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소식의 산문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소식의 산문은 전범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식의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리 전개에 대해 긍정하는 다수 비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식의 산문이 긍정 일변도로 평가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사상적 측면에 대한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론 산문과도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 참신한 입의 설정과 명쾌한 논리 전개는 사론 산문의 문학적 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니와, 그의 사상적 비순정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조선의 사론 산문을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범으로 인식되었던 소식의 산문이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소식의 사론 산문에는 그의 사상적 개방성에 기인하여 유교적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가의 사상에 경도되었던 조선 문인들에게 부정을 불러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대의 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사론 산문의 창작 경향 속에서 전범의 위상을 지닌 그의 사론 산문은 후대 문인들에게 단연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 문인들은 소식이라는 전범을 넘어서기 위해 특정한 서술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더한다. 구체적으로 소식의 <무왕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유교적 통념 거부에 대한 비판의 예각 화가, <오자서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논리 전개의 차용을 통한 반박

의 심화가, <범증론>을 비판하는 작품에서는 치밀한 정황적 근거 제시를 통한 논파의 강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부록]

<표 1> 소식 사론 산문을 비판하는 조선시대 사론 산문 목록

	작가	작품명	비판대상(소식의 작품)
1	金富弼(1516~1577)	蘇軾非武王	武王論
2	尹根壽(1537~1616)	范增論	范增論
3	崔有淵(1587~?)	范增論	范增論
4	權認(1604~1672)	蘇氏論武王辨	武王論
5	柳世鳴(1636~1690)	讀蘇東坡賈誼論	賈誼論
6	申靖夏(1680~1715)	增不去項羽不亡論	范增論
7	李瀼(1681~1763)	范增論	范增論
	林象德(1683~1719)	伍員復讎辨	伍子胥論
8	李天輔(1698~1761)	范增論	范增論
9	李獻慶(1719~1791)	范增論	范增論
10	洪良浩(1724~1802)	范增論辨	范增論
11	李種徽(1731~1797)	張子房論	留侯論
12	都禹環(1755~?)	蘇東坡論武王荀彧辨	武王論
13	金佐永(1789~1856)	范增亦人傑論	范增論
14	河仁壽(1830~1904)	續范增論	范增論
15	吳駿善(1851~1931)	范增論	范增論
16	吳駿善(1851~1931)	論解蘇東坡武王論	武王論
17	芮大周(1865~?)	書東坡武王論後	武王論
18	禹夏九(1871~1948)	范增論	范增論
19	蔣華植(1871~1947)	看東坡賈誼論	賈誼論
20	金在華(1887~1964)	書蘇文忠范增論後	范增論
21	金賢述(1898~1961)	讀范增論	范增論
22	尹禹學(1870~1945)	書范增論後	范增論

참고문헌

金富弼, 『後彫堂集』, 한국문집총간 속집 2, 한국고전번역원.

權認, 『炭翁集』, 한국문집총간 104, 한국고전번역원.

申昉, 『屯菴集』, 한국문집총간 66, 한국고전번역원.

李瀼, 『星湖先生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한국고전번역원.

李恒老, 『華西集』, 한국문집총간 304, 한국고전번역원.

李獻慶, 『艮翁集』, 한국문집총간 234, 한국고전번역원.

林象德, 『老村集』, 한국문집총간 206, 한국고전번역원.

趙龜命, 『東溪集』, 한국문집총간 215, 한국고전번역원.

崔昌大, 『昆侖集』, 한국문집총간 18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백진우, 『李天輔의 史論體 散文에 대하여』, 『민족문화』 31, 2008, 213~241쪽.

_____, 『조선후기 사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170쪽.

성백효 역주, 『譯註唐宋八大家文鈔』 소식3, 전통문화연구회, 2010, 66~71쪽.

송혁기, 『17-18세기 조선 문인의 蘇軾 산문 批評』, 『한자한문연구』 2, 2006, 73~97쪽.

김만중 저, 심경호 역, 『서포만필』 상, 문학동네, 2010, 1~663쪽.

김만중 저, 심경호 역,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10, 1~705쪽.

윤세순, 『역사인물 오자서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인식태도』, 『민족문학사연구』 51, 2013, 200~229쪽.

조규백, 『조선조 문인의 蘇東坡 인물 및 산문에 대한 평가』, 『대동문화연구』 80, 2012, 235~265쪽.

ABSTRACT

A study on Criticism about Su Shi's historical essays

Jung, Ha-jung

This paper aims to explore historical essays which performed as a place for debate by arguing previous discussion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reasons why Su shi's historical essays were criticized by Joseon writers and how the literary works that criticized Su shi's historical essays refute Su shi's perspectives.

First, we looked through the perception of Joseon writers on Su shi's essays. As a result, Su shi's essays were implacably considered as a model and we were able to identify several criticisms which praise Su shi's novelty opinions and clear development of logics. However, there were also negative opinions on Su Shi's essays which refute the aspect of the underlying philosophy in Su Shi's works. These parts are correlated with historical essays.

The reasons why Su Shi's historical essays, regarded as a model, were criticized by Joseon writers can be inferred in terms of Su shi's ideological problem revealed in his works.

Su shi created some works which refute the conventional confucian views, and these creation is derived from his ideological openness. However, these works could not avoid Joseon writers' criticism infatuated with Confucian ideas. In addition, regarding the historical essays' tendency of creation that establish its logic by criticizing previous discussions, it is expected that Su shi's work were regarded as a target which needs to be overcome to the later writers. This leads Joseon writers to devise specific narration strategies in order to attain cogency.

Key Words Historical essays, Su Shi, criticism aspect, Wu Zixu, Fan Zeng, Zhpu wu wang

논문투고일 : 2015. 11. 06
심사완료일 : 2015. 12. 6
게재확정일 : 2015. 12. 10